

# 행복한 미래를 찾아 전주에 모인다

전 세계 사람·생태·문화·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오는 13일~14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제생태문화협회(ISEC),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각자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강연에 나선다. 특히 '지역의 미래'와 '로컬푸드', '지역화폐', '행복담론'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워크숍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제회의 첫날은 '오래된 미래'와 '행복의 경제학'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의 '지역화 중심의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열린다. 또 조지 퍼거슨 전 영국 브리스톨 시장, 레이몬드 엽 일본 나

## 13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

가누마 메노빌리지 이사, 조나단 다슨 영국 슈마허 대학 경제학과장, 하세가와 마사코 일본 CSO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자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강연에 나선다. 특히 '지역의 미래'와 '로컬푸드', '지역화폐', '행복담론'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워크숍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먼저 '지역의 미래' 세션에서는 조지 퍼거슨 전 영국 브리스톨시장과 세계적인 사회·문화 잡지인 '뉴 필로소피'의 잔 보야그 편집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와 발제와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로컬푸드' 세션에서는 레이몬드 엽 일본 나가누마 메노빌리지 이사과 나영삼 전주시 전주푸드팀장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지역화폐'와 '행복담론, 지역의 힘' 세션은 조나단 다슨 영국 슈마허 대학 경제학과장과 하세가와 마사코 일본 CSO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주체들

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16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박람회에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32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해 생산품을 전시·판매와 사회적경제포럼 및 청년 작가들의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도시락 파티 등 다양한 상품과 볼거리가 제공된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는 사람과 생태, 문화를 기치로 내건 민선6기 시정방침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우리들의 권리 되찾겠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호남권역 조합원 2000여 명이 익산역 앞에서 3차 총파업 총력 투쟁대회를 갖고 성과연봉제 퇴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전주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 발족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 및 주민친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법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법지원자문위원회'는 사회봉사 집행, 법 교육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등 전주준법지원센터의 주민친화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주변 환경정화

및 우범 지역 비상벨 설치, 배려·법질서,교통 캠페인 추진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최 소장은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준법지원위원회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주민친화 사업 수행에 주력, 향후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승용차 상점 돌진... 1명 부상

10일 오후 3시37분께 김모(22)씨의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를 넘어 전북 전주시 중앙동 한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얼굴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충격으로 상점 철문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 이웃집서 강도행각 40대 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상해)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1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 B씨(53·여)의 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B씨를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과 금목걸이 등 9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에 이웃집에 살던 A씨가 B씨의 집 창문으로 이동한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4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술에 취해 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김영재 기자

## 현직 교사가 옷 훔치다 멀미

현직 교사가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다 멀미를 잡혔다.

10일 군산경찰서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2시20분께 군산시 한 의류 매장에서 40만원 상당의 옷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이날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원도심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나서

### '도시재생대학' 운영

전주시가 주민들이 주도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주시는 1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3주간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한다. 원도심 도시재생대학은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원도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교육 첫 날인 11일 강연에는 김현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생?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고?'를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임을 알리고,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전주시 도시재생대학은 13일 조성통 건축사무소 대표의 '도시의 정체성 찾기·특화지역 조성하기'를 주제로 한 강연과 18일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정지혜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과 도시경관'을 주제로

수일 화성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경관정리를 추진했던 사례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마지막 5강에는 이주원 두개비하우징 대표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주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에는 또 오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와 순천, 천안 등 원도심 도시재생 사례를 배우는 견학도 예정돼있다.

시는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업무, 상업, 문화·관광, 주거 등 전주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유동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 조치를 결합해 해나가고 있다.

시는 이번 원도심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쇠퇴한 전주시 원도심 공간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고, 보다 나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도심 재생 방안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상인·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 개개인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영철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재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 전주시, 다각적 방법 동원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전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자예금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등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에 나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반기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마친 9월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이 17억원, 징수율은 4.9% 증가한 8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액체납자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체납 규모가 324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시는 이달 중 부동산이 없는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총 4112명(45억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재은행에 대한 예금이 압류되면 출금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전자예금 압류 시행에 앞서 예

금압류 예고문을 발송, 본인의 체납을 인식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자진 납부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0만원 이상의 과액·고액 체납자 164명(6억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공매예고 후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징수도 강화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정하고, 3개 팀 9명으로 구성된 변호관 영치팀이 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고스란히 투자되는 선순환 재원으로, 전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